

지난주 침례 인수	2016년 인천 교회 나아갈 방향 모든 성도가 신성한 편신 안에서 부흥되어 하나님-사람 생활을 살고 열매 맺는 해	2016 침례 인수
0명		12명

인천 교회 기도 제목	몸의 요청 기도 제목
◎ 올해 인수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 ◎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가게 하소서. ◎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일으키소서. ◎ 새롭게 확장한 영종 지역을 축복하소서. ◎ 강화 그룹과 가평 교회를 축복하소서. ◎ 목회자세미나를 축복하소서.	- 독일의 중동 난민들에게 복음 전파 및 목양을 강화하시며 현지 통역자들을 얻으소서 - 주님의 사역을 위해 동역자들의 가족들과 건강을 돌보소서. - 성경진리사역원 교육관 신축을 위하여 주변 민원이 해결되게 하소서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회복의 증거를 증가시키고 확산하여 이 시대의 종결을 준비 하게 하소서

♣ 교회소식

《인천 교회 집회 안내》

1. 자매 집회 : 2016.4.21(목) 오전10시 작전동집회장소

2. 목회자 세미나 (에베소서)

- ① 일 시 : 5.31(화)까지 매주 오전 10시 ~오후3시
- ② 장 소 : 인천 교회 학생센터
- ③ 대 상 : 목회자, 복음전구, 성도들
- ④ 회 비 : 30,000원(중식 및 교제비포함, 대학생은 회비 없음)

3. 인천 교회 온전케 하는 훈련 집회

- ① 일 시 : 4.23(토) **집회Ⅰ** 오후 4시~오후 5시45분

* 자매 사사 : 5시45분~6시45분

집회Ⅱ 오후6시45분~8시30분

4.24(주일) **집회Ⅲ** 오후4시30분~오후 6시15분
- ② 훈련내용 : 복음
- ③ 회 비 : 5,000원
- ④ 장 소 : 공촌동집회장소
- ⑤ 신 청 : 지역별로 취합하여 집사실로 신청

♣ 지난주 집회 인수 현황 (2016.04.04.(월) ~ 2016.04.10(주일))

지역	1지역 (85명)										2지역 (100명)										3지역 (94명)										4지역 (114명)										5지역 (94명)										6지역 (52명)										7지역 (23명)										계																																																																																																																																																																																																																																																																																																																																																																																																																																																																																																																																																																																																																																																																																																																																																																																																																																																																																																																																																																																	
그 루	학 의	인 의	신 의	정년1	정년2	가 족	구 복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만 주	장 주	영 양	영 양	주 안	정년



인천 교회 소식

WEEKLY LETTER OF CHURCH IN INCHEON

집사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94번길 40

홈페이지 주소 : www.icchurch.or.kr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2016. 04. 17. 16-16

032-566-0190 FAX 032-567-0190

E-mail : triune@nate.com

복합되신 영의 기름 바름

요일2:27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에서 기름 발라 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에서 기름 바르시는 것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 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합적인 기름 부음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바 기름 부음 이 너희 안에 거하니나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 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한다. 물론 우리 안에 거하는 기름부음은 움직이는 인격이다. 우리 안에 거하는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인격이다. 이 기름 붓는 인격이 기름 부음이다.

이 기름 붓는 인격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30장으로 가야 한다. 출애굽기 30장에서 우리는 성막과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것이 복합적인 관유의 기능임을 본다. 제사장이 복합적인 관유로 기름 부음 받을 때마다, 감람기름과 몰약과 육계와 창포와 계피 모두가 그 제사장에게 적용된다. 우리가 지난 메시지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복합적인 관유로 예표된 복합적인 그 영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과 그분의 부활 능력과 신성과 인성의 연합과 책임을 지는 능력과 건축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는 기름 부음이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27절은 말한다.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다거나 아버지는 아들과 하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문맥을 살펴본다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아버지와 아들에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의 가르침

27절에서 요한은 또,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라고 지적한다. 요한은 '모든 것'을 무슨 뜻으로 말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내가 수년 동안 했던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 즉 옷을 입는 법, 이발하는 법, 돈을 쓰는 법,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과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 우리 안에 거하는 기름 부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고 말하는 터무니없는 이단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다르다거나 그리스도가 그 영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우리의 내적 체험을 점검해 보라. 당신은 당신 안에 복합적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 이 기름 부음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과 영원한 생명이 모두 당신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 우리의 내적인 기름 부음의 체험에 따라 우리 중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영원한 생명과 그 영이 모두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을 분리할 수 없다. 우리는 신학자들에게 갈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복합적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름 부음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과 영원한 생명과 그 영이 분리될 수 없으며 그들 모두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한다.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성경 교사들과 상의하지 말라. 대신 안에 있는 복합적인 기름 부음의 가르침에 주의하라.

기름 부음 안에 거함

27절에서 요한은 또 기름 부음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우리에게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그) 안에 거하라"고 말한다. 번역자들은 이 구절의 끝 대명사를 '그(him)'로 번역해야 할지 '그것(it)'으로 번역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흠정역의 어백에서는 '혹은 그것(or it)'이라고 말한다. 나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것(it) 안에 거하라"라고 말한 것을 더 좋아한다. 그것을 '그' 로 번역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상 헬라어 단어는 '그것(it)'을 의미한다. 왜 내가 이 구절에서 '그' 대신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가? 그 까닭은, 여기서의 의미는 우리가 기름 부음 안에 거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름 부음은 만유를 포함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책임지는 능력과 건축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만유를 포함한 영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복합적인 그 영에 의하여 기

를 부음 받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이 기쁨 부음에 덮여 있다. 복합적인 그 영의 기쁨 부음에서 우리는 거룩과 승리와 생명과 빛과 능력과 참 영적인 것을 갖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만유를 포함하는, 생명 주는 영의 기쁨 부음 안에 있는 삶이다. 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리스도의 삶이 가르침이나 개선이나 조정이나 교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복합적인 기쁨 부음의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 실제로 이 기쁨 부음을 적용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가정생활에, 직장 생활에, 쇼핑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우리에게 기쁨 부음으로써, 복합적인 그 영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 아닌 복합적인 기쁨 부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 이상을 보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복합적인 그 영의 기쁨 부음에 관한 이상을 본다면, 오늘날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 종교는 복합적인 그 영의 기쁨 부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기쁨 부음의 가르침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신학, 규제, 조직, 성격을 개선하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종교적이고 천연적이고 윤리적인 배일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며, 합당하게 해석하지 못한다. 여기에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복합적인 기쁨 부음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란다.

《줄애굽기 L/S M165에서 발췌》

그리스도를 대적함과 그리스도를 대치함

헬라어 전치사인 안티(anti, 敵)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대적하는’이고, 둘째는 ‘대치하는, 혹은 …대신 에’이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다른 것으로 대치할 것임을 나타낸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한 면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또 다른 면으로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어떤 것을 갖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퍼하심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원칙에 포함됨을 본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어퍼하심을 부인할 때마다 그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를 어떤 것으로 대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자이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치하는 것에 대한 예로써 현대주의자들을 보기로 하자. 현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구속자이심을 부인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핍박을 받으셨고 그 가르침 때문에 죽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순교하셨다고 주장한다. 현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속자이심을 명백히 부인한다. 우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이 방면을 부인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계속하여 구속자를 순교자로 대치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순교자로 구속

자를 대치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어퍼하심을 부인한 결과 그리스도 대신 어떤 것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어퍼하심을 부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인격의 어떤 부분, 어떤 방면 또는 어떤 항목이라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어떤 방면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적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의 어떤 방면을 부인함으로써 이 방면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지도 모른다.

《요한서신 L/S M31, 298-299에서 발췌》

한 면으로, 전통적인 신학은 그리스도의 어퍼하심의 어느 방면을 부인할 수 있다. 다른 면으로, 이 신학은 삼일 하나님을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관계없는 교리로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신학은 그리스도의 어퍼하심을 부인하거나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면에서 적그리스도의 원칙을 따를 수 있다. 그리스도가 종교나 문화나 개선된 성격이나 선한 행동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전통적인 신학의 가르침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 안에 거하는 것도 모를 수 있다. 그들은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자극하는 힘으로만 믿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신학은, 우리 안으로 역사되어 우리의 일상적인 누림과 체험이 되는 하나님의 본질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아마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어떤 것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천연적이고 종교적이며 문화적이고 윤리적인 것들로 그리스도를 대치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습관, 문화적인 표준, 종교적인 전통, 윤리적인 관념, 기쁨 바름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로 그리스도를 대치하는지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도 적그리스도의 원칙을 따를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것들, 심지어 종교, 문화, 윤리의 선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의미에서의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것들로 그리스도를 대치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원칙 안에 있는 일상생활을 회개해야 하며 문화나 종교나 윤리나 천연적인 관념이 그리스도를 대치하도록 하라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주여, 모든 대지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건져 내소서. 주여, 우리를 당신의 기쁨 바름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어떤 길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우리는 기쁨 바름 안에, 기쁨 바름을 통하여, 기쁨 바름에 의해 살고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역사 하심과 적서주심에 의해 살고 행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계시이며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의 부담이다.

《요한서신 L/S M33, 322-323p에서 발췌》

활력 그룹의 목적과 본성과 상태

요15:17 내가 여러분에게 이룩한 것들을 명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활력 그룹은 그 목적과 본성과 상태에 있어서 성경의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1. 활력 그룹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의 증가와 온전케 함과 건축이다

표준에 도달한 그룹들은 성경에 계시된 정상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활력 그룹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의 증가와 온전케 함과 건축이다(행2:46-47, 엡4:12). 활력 그룹은 증가를 얻고 온전케 함을 이루어 내며, 건축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정상적인 수준이다. 이 구절에는 많은 중요한 요점들이 있다. 첫째 요점은 ‘날마다’이며, 둘째 요점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확고부동하게 계속함’이고, 셋째 요점은 ‘집집마다 떡을 떼는 것’이며, 넷째 요점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이 구절에서 믿는 이들은 음식을 누렸을 뿐 아니라 기쁨으로 거기에 동참했다. 기뻐한다는 것은 즐거운 소리를 발함으로 찬양한다는 뜻이다. 다섯째 요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으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요점은 ‘주께서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을 더하셨’다는 것이다. 증가는 이런 상황에서 온다. 증가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두 구절들에 언급된 몇 가지 사항들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합당한 길은 의전과 분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하게 계속하여 동일 함으로 집에서 집회를 하며 주님의 상을 나누며 기쁨으로 먹고 즐거워하며 소리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다. 전에 니형제님은,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결코 미쳐 본 일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미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합당한 증가를 위한 조건들이다. 그러한 조건 안에서 주님은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실 수 있다.

에베소서 4장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각 사람으로 사역의 유일한 일,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들이 그룹을 갖는 활력적인 움직임의 목적이다.

2. 그 본성-영적인

활력 그룹의 본성은 영적인 데 있다(행 13:52, 4:31하). 영적이란 것은 안과 밖이 성령으로 충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심지어 매일 저녁까지라도 충만 되기를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주여, 당신 자신으로 나를 채우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매일 아침 나의 규칙적인 기도는 “주여, 좋은 잡으로 안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두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심과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런 정결케 함이 나를 당신의 임재 안으로 이끌며 당신은 복합적인 관유하신 만유를 포함한 영으로 당신 자신을 내게 지금 기쁨 바르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충만케 하소서”이다. 그러한 규칙적인 기도는 공허한 반복이 아니다. 나는 날마다 세 번 식사를 하며 매번의 식사는 정구 식사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주님

이 나를 완전히 채우고 적시도록 날마다 기도한다. 우리 모두는 젊은 나이가 들었던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를 활력적이게 하며 신선하게 하고 새롭게 할 것이다.

3. 상태-하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사랑함

활력 그룹의 상태는 하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요13:34-35).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다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해마다 함께 집회를 하기 때문에 분명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활력 그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상태는 이보다 더 깊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상호적인 사랑 안에서 함께 집회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 안에서 동일 함으로 서로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이 삼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일 때 온 세상이 그분이 아버지에게 의해서 보내심 받은 것을 믿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21, 23절). 이것이 사람들을 얻는 길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에서 주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온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이것이 실질적인 영향력이다. 우리가 아무 것도 말하지 않음지라도 사람들은 확신을 얻게 될 것인데, 이는 그들이 우리가 하나 된 안에서 동일 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실제로 하나라면 그들은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는가 의아해할 것이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산 인격이시다. 우리가 하나인 것이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가장 강한 증거이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분의 제자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람들을 얻는 조건들이다, 상태들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합당한 증가를 얻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가. 자기 선호들을 모두 버리고 그 영의 지시를 따르며 동료 지체의 느낌을 존중함

한 마음, 한 뜻 안에서 몸의 하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자기 선호를 전부 버리고 모든 개인적인 취향을 무시해야 한다. 자매들은 자주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에 있어서 형제들보다 더 강하다. 우리의 자기 선호나 개인적인 취향은 몸의 하나를 지키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다. 결국 그 영의 하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그 영의 지시를 따르며 동료 지체의 느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견해나 의견에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그 영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영으로 돌아와 주께 있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느낌을 존중하고 돌보아야 한다.

나. 그룹 안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은 사랑으로 사랑함

더욱이 우리는 우리 그룹의 모든 지체들을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흔히 우리는 어떤 성도들을 다른 이들보다 더 사랑한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발림보서 2장 2절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269-271p 발췌》